



‘산울림’ 김창완과 한희원 함께 ‘노래·시·웃음·눈물같은’ 전시회

한희원 미술관 7주년 기념
2023년 1월 30일까지
노래처럼 작품서도 따뜻함 느껴져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오/두고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빛속에서 포용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작품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앞에 서니 저절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된다. 어렵잖아 생각나는 가사도 읊조려본다.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그림에서는 노래 ‘산할아버지’, ‘개구쟁이’도 떠오른다. 마치 아이가 그린듯한, 크레파스 화로 장식한 그의 앨범 재킷을 떠올리면 ‘그림 그리기’ 그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만은 않았다.
‘산울림’ 김창완(68)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희원미술관(광주 남구 양촌길 27-6) 개관 7주년 기념전-김창완-한희원 2인전 ‘노래, 시, 웃음, 눈물같은’이 내년 1월30일까지 개최된다.



김창완의 '별'



한희원미술관 야외공간에서 만나는 김창완과 한희원의 작품.

/김미은 기자 mekim@

◀ 김창완 작 '코 없는 엄마'
▼ 한희원미술관에서 2인전을 갖는 김창완(왼쪽)과 한희원 작가.

(한희원 미술관 제공)



‘산울림’ 데뷔 45주년을 맞아 초창기 LP음반이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속속 발매되고 아이유, 김필과 함께 부른 ‘나의 의미’, ‘청춘’ 등을 통해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그림’으로 팬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마음이 단번에 맞는 두 남자가 의기투합해 한달여만에 마련됐다. 시작은 지난 9월말 서울 연세갤러리에서 열렸던 한희원 작가의 ‘거친 붓터치에 삶의 아픔이 전이’였다. 마침 2월 그룹전 ‘노래, 시, 웃음, 눈물같은’을 통해 화가로 데뷔한 김창완의 첫 개인전이 한 작가 바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시공간을 미리 보러온 그는 한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닿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
김창완의 전시 개막식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글들을 주고 받다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서울 전시가 끝나자마자 작품을 바로 미술관으로 보냈고, 마침 김창완 밴드 광주 공연이 열린 20일 7점의 작품을 더 챙겨 한희원미술관을 방문했다.
1977년 두 동생과 함께 ‘산울림’으로 데뷔한 그는 가수이자, 작곡가,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SBS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를 23년째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DJ이기도 하다.
김창완은 동시집 ‘무지개가 편 방이방방’, ‘사일런트 머신, 길자-환상스토리’ 등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문학청년이었고, 시화집을 내

기도 한 한 작가와 절이 맞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120호 대작을 비롯해 유화와 아크릴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위로를 주는 그의 노래처럼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따뜻하다. 마치 ‘시처럼’도 읽히는 그의 노래가사가 화면에 펼쳐지는 것 같고, 동심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동화 속 풍경같기도 한 ‘별’, 푸른색으로 그려낸 심장 시리즈,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인상적인 ‘행복한 마음’, ‘코 없는 엄마’ 등에서는 그의 맑은 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하다. 또 기발한 가사말처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달밤’처럼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한희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작 ‘생의 시간’을 비롯해 ‘상처받은 별들의 춤’, ‘해바라기와 검은 소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기타치는 가수’는 김창완의 모습과도 겹쳐 보인다.
한희원 작가는 지난 2015년 추억이 어린 양림동에 개인미술관을 열었다. 꾸준히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난 2016년에는 문순태 작가와 2주년 기념전 ‘거리에서 만난 문화와 미술’을 열기도 했다. 안식년처럼 주어졌던 조지아공화국에서의 1년과 코로나 19 등으로 미술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술관은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관람객들을 맞으며 예술의 향기를 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실화 소설 ‘누나의 오월’ 영화로 풀어낸다 윤정모 작가 원작...노홍식 감독 참여·파란프로덕션 제작



윤정모
위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날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슴 속에 묵혀 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누나의 오월’이 영화로 제작된다.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의 원작 ‘누나의 오월’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중이던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을 맡았고 항쟁 이후 ‘금희의 오월’ 연극으로 오월 광주를 알린 박효선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소설 속 주인공이자 일인칭 화자 ‘기열’은 비

극적 광주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누나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알아가며 역사적 진실을 깨닫는다.
각본과 감독에는 KBS드라마제작국, KBS에능제작국, YTN보도제작국 등 방송·영화 콘텐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홍식 감독이 참여했고 (주)파란프로덕션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윤정모 작가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상처는 아물어야겠지만 그 정신을 살려 기억은 늘 새로

하의3도 농민들 투쟁... ‘바다를 건넌 사람들’ 전정호 초대전, 12월 8일까지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바다를 건넌 사람들’

‘목판화로 만나는 하의 3도 농민 항쟁.’
조선 후기부터 해방 정국까지 하의 3도 농민들의 350년에 걸친 농지 탈환 역사를 담은 판화전이 열린다. 하의3도는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와 신의면 상태도·하태도 3개 섬을 이르는 말이다.
전정호 작가 초대전 ‘바다를 건넌 사람들’전이 오는 12월 8일까지 신안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연작판화 85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총 5개 주제로 진행된다.
작가는 ‘봉건권력과의 투쟁’, ‘일제 강점기 농토 탈환투쟁’, ‘미군정시기 농민항쟁’, ‘간척, 바다와의 싸움’, ‘밥 시리즈’를 통해 하의 3도 7.7농민항쟁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전시작은 작가가 지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으로 목판화가 갖는 손맛과 강렬한 이미지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
하의도(현 신의도) 출신으로 목포에서 유년기를 보낸 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대학 재학 중 미술운동에 투신한 그는 주로 걸개그림과 판화, 만장, 깃발 등 현장 미술 시작 매체들을 다루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전 작가는 민중미술운동, 연안환경미술행동 등 노동현장에서 미술운동에 전력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동아시아인권과평화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참

여, 생명평화미술행동, 아시아목판화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350년간 하의3도에서 일어났던 농민투쟁을 통해 신안군 섬사람들의 위대한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려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흐르다 깊어지다 넓어지다’ 26일·12월 3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전남도립국악단은 26일과 12월 3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정기공연 ‘흐르다 깊어지다 넓어지다’를 연다. 이번 공연은 전남도립국악단 4개 부서가 독립적인 기획과 연출을 통해 각 부서의 예술적 경쟁력을 선보인다.
먼저 첫날인 26일에는 ‘타악과 타악의 연대 울림’이란 부제로 사물부의 무대가 펼쳐진다. 사물부 오주석, 장동준 수·차석과 연희컴퍼니 UHEE(유희) 임영호 예술감독의 연출로 다양한 무대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다. 무대에는 설장구놀이 ‘광대의 정원’과 판굿놀이 ‘컨템포러리 판’, 타무악 협주곡 ‘마침내 바다’, 모듬북 합주곡 ‘SAY 타’ 등의 작품을 올린다.
내달 3일에는 무용부의 ‘초연·산이 다한 곳, 구름 한 송이’를 선보인다. 무용부 박미옥, 조애라 수·차

석과 미아트컴퍼니 김유미 예술감독이 꾸리는 무대로 ‘기락이 사람의 몸을 통해 흘러나오’ 공연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무용부만의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무용극 ‘봄날’과 ‘가시리’, 입춤고와 한량무, 설장구춤 등 전통 무용의 정취가 담긴 무대가 마련됐다.
관람료 1만원. 예매문의 061-981-6923.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야놀자’와 숙박 할인프로모션

광주관광재단은 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숙박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 소재 숙박업체와 관광호텔 100여개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광주 숙박상품을 선택하면 6만원 이상 호텔 결제 시 3만원, 4만원 이상 호텔 결제 시 2만원, 2만원 이상 게스트하우스 결제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야놀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광주광역시’ 카테고리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발급된 쿠폰 사용은 12월 19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광주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 ‘야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야놀자’ 사이트 내 숙소, 레저, 액티비티, 교통 등 여가 상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광주 여행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